

## 한국 IT 본 글로벌 기업의 수출성과와 기업특성\*

민보연\*\* · 김민호\*\*\*

###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IT(Information Technology) 본 글로벌기업(Born Global Firm)의 국제화에 따른 수출성과와 기업특성에 대한 분석이다. 우리나라 코스닥에 등록된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창업 후 5년 이내에 국제화를 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월 평균 수출액이 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 2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해 총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본 글로벌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 수출증가율(전년도 대비 수출액 증가율) 두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수출시기, 기술력, 부채비율, ROE, 주가수익률로 정하여 t-검증과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수출시기는 IT기업의 경우 국제화가 빠를수록 높은 수출성과를 보여주었고, 기술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부채비율은 수출증가율이 높은 그룹의 부채비율이 높았으며, 기업규모는 수출성과와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ROE는 수출성과가 높을수록 높았으며, 주가수익율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IT 본 글로벌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객관적인 기업자료를 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독립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핵심주제어 :** 본 글로벌 기업, 국제화, 수출성과, 기업특성

\* 논문접수일 2009년 11월 13일,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30일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bymin@jbn.ac.kr)

\*\*\*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kimmh@jbn.ac.kr)

## I. 서 론

전통적인 기업의 국제화는 국내 설립 이후 점진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들어 첨단기술의 발달 등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창업과 동시에 국제화를 추구하는 태생적 글로벌 기업(Born-global Firms, Rennie, 1993; Knight and Cavusgil, 1996) 또는 국제신생벤처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s : INVs, Oviatt and McDougall, 1994)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국제화 이론만으로는 창업 초기 국내시장 활동 없이 창업초기에 신속히 해외진입을 시도하는 신규벤처기업들의 국제화 활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벤처기업들의 활동에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Cavusgil and Knight, 2009 참조).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벤처기업이 붐을 이루었고, 이들은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사업초기부터 국제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창업 후 3년에서 5년 사이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본 글로벌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벤처기업들은 가용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신생기업으로서의 한계(liability of newness) 및 작은 기업규모의 한계(liability of smallness)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R&D비용과 짧은 기술수명주기 등으로 인해 설립초기부터 전략적인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박근호, 2007; 김상지·송재용, 2009).

본 글로벌 현상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들 기업들이 신속하게 국제화를 이루게 된 동기와 그에 따른 성과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OSDAQ에 등록되어 있는 IT벤처기업들 중 본 글로벌 기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수출성과에 따른 기업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높은 수출성과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면 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신생기업인 본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해외시장보다는 국내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본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기존의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기업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다른 측면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 있다. 제 II장에서는 연구가설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 III장에서는 자료 설명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IV장에서는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 V장은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이다.

## II. 연구 가설

### 1. 수출성과와 수출시기

본 글로벌기업이 창업초기부터 국제화를 추진하게 되는 동기는 글로벌한 경제환경(Rasmussen and Madsen, 2002), 틈새시장의 출현(Madsen and Servais, 1997), 정보통신 및 운송기술의 발전, 창업자들의 역량증가(지용희, 최순권·김정포, 2002)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 획득할 수 없는 기술 등을 획득하거나 해외사업을 통한 경쟁력개발, 그리고 기업역량강화 등을 위해 창업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viatt and McDougall, 1994).

학자마다 진출 시기에 대한 의견이 다르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창업 후 3년에서 5년 이내에 국제화 하는 기업을 본 글로벌 기업이라 정의하며(Zucchella, et al, 2000; Knight and Cavusgal, 2004, 2005), 이들 대다수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러한 본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화 성과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Autio et al.(2000)은 기업은 창업초기부터 신속한 국제화 활동을 할 때 해외시장에서의 효율적인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국제화 성장률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해외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으로서의 조직적 관성을 피하고 글로벌 경쟁에 필요한 자원능력과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쟁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진출 시기가 빠를수록 높은 국제화 수준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Johanson and Vahlne(1977)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시기가 빠를수록 해외시장의 위험지각도가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해외시장에의 신속한 진입은 해외시장에 대한 학습비용 및 노력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화 성과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초기부터 신속한 국제화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벤처기업의 국제화 속도가 국제화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상문, 2005). 박근호, 고경일(2007)역시, 기업의 국제화 속도가 빠를수록 국제화 성과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창업 이후 해외시장 진출 시기가 빠를수록 국제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국내외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본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도 수출시기와 수출성과는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가설 1 : 수출시기가 빠를수록 수출성과는 높을 것이다.**

국제화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간을 창업 후 해외매출 혹은 수출이 처음 일어난 때까지 걸린 시간은 년(year)단위로 측정하여 검증한다.

**2. 수출성과와 기술력**

본 글로벌기업에 대한 기존 연구는 기술집약적 산업인 첨단기술 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업은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이 전략적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Shrader, 2000; Zahra et al., 2000).

이러한 산업은 특히 R&D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이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이는 기업의 기술적인 지식기반과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기술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게 된다(Cohen and Levinthal, 1990). 이와 같은 R&D밀집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국제화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시장을 확장하고 이용함으로써 높은 고정비용에 대한 회수를 서두르게 된다(Jolly, et al., 1992).

김형준, 정덕화(2007)는 본 글로벌 기업은 R&D에 투자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창업 초기 기업의 국제화 단계에서 R&D에 투입되는 요소의 양적인 측면보다는 기능적인 팀 간의 협력과 몰입과 같은 질적인 흡수 능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김상지, 송재용(2009)은 기업의 기술적 역량이 신속한 국제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기업이 연구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신속한 국제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R&D투자가 본 글로벌 기업이 높은 해외매출성과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력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R&D능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한다.

**가설2 : R&D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성과가 높을 것이다.**

본 글로벌 기업의 기술력을 총 매출액 대비 R&D비율로 측정한다. R&D비용은 자산처리의 경우와 비용처리의 경우가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합산하였다. R&D비용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총 매출액과 총 R&D비용을 구하여 3년간의

산술 평균치를 사용한다.

### 3. 수출성과와 부채

우리나라 기업의 자본구조결정요인을 연구한 선우석호(1990)는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자들의 비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 기업들에게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하나의 가설은 상장기업의 경우 과도한 부채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청산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에 비하여 수출기업, 특히 본 연구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본 글로벌기업의 경우에는 대개 설립 초기 단계부터 급격한 국제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국제경제 환경 변화나 환율 등의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본 글로벌기업의 경우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부채관리를 포함한 재무적 변수 관리를 유연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본 글로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를 지니고 있고 이는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경색을 완화해 줄 수 있으며 향후 부채가 필요할 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Gleason, Madura, and Wiggerhorn, 2006). 이와 반대로 본 글로벌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자본 부족에 시달리고 따라서 신속한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벤처를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 혹은 엔젤자금을 심하게 의존할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Harris and Li, 2007). 본 연구에서는 일단 수출성과가 높은 본 글로벌기업들의 부채는 수출성과가 낮은 기업들 보다 적다고 가정한다.

**가설 3: 기업의 부채가 적을수록 수출성과가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부채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본 논문의 부채비율 역시 각 기업별 총 부채금액을 해당기업의 자기 자본으로 나누었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부채비율을 구하여 검증하였다.

### 4. 수출성과와 기업규모

수출성과와 기업의 규모에 관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서로 상이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Dhanaraj and Beamish(2003)는 수출에 있어서도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수출성과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 기업의 금융 혹은 비금융 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시장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기업의 규모는 기업의 자산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므로 기업의 규모와 수출성과와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특히 첨단 혹은 바이오 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수출성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부(-)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Elmes and Kasouf, 1995; Calof, 2003; Barber and Alegre, 2007). 즉 이들 기업의 경우 R&D를 통하여 개발한 기술이나 특허 등 무형자산을 기업의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때문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규모와 수출수준 또는 국제화 수준에 대한 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IT벤처 기업 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수출성과와는 무관하다고 가정하고 검증을 한다.

#### 가설 4 ;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성과가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규모는 총 종업원 수, 총 생산액, 총 판매액 등으로 측정하여 표준화한 자료를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종업원수로 기업규모를 측정한다.

### 5. 수출성과와 자기자본수익률(ROE)

자기자본수익률(Return On Equity : ROE)는 기업의 내적 가치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ROE를 보면 자기자본에 비해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송혁준, 김재준, 오웅락, 2004).

또한, ROE는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성장률과 수익성을 평가하는데 단순한 이익의 성장률이나 매출성장률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그 이유는 회계상의 이익은 회계분식 등으로 인해 왜곡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성장률과 같은 단순한 개별지표를 평가하는 것보다 모든 지표가 혼합되어 있는 ROE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면 그 왜곡을 줄일 수 있다.

ROE가 높은 기업은 순이익성장률이 높고 매출액 성장률이 높으면서도 꾸준히 자기자본, 즉 해당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장부가치가 상승함과 동시에 주주이익도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ROE의 증가치를 통해 해당기업 주가의 상승

뿐만 아니라 주가 대비 수익비율과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도 거의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의미로서 해당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의 예측가능 정도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Fama and French,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ROE가 높은 기업은 수출성파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가설 5 : 기업의 ROE가 높을수록 수출성파가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ROE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즉,

$$ROE = \text{당기순이익} / \text{자기자본}$$

여기에서 순수한 영업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이용하며 재무효율성을 나타내는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 등과 같은 재무비용은 제외된다. 재무비용이 이 비율에서 제외됨으로써 자본구조(타인자본의존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당기업의 ROE를 산정한 후 3년 평균치를 구하여 사용한다.

**6. 수출성과와 주가수익률**

한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기업의 주가이며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에 의한 특정 기업의 가치를 나타낸다.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경제성장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을 분석하여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 수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이며 수출증가는 경제성장을 거쳐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Fama and MacBeth, 1973, Fama and French, 1992).

Gleason and Wiggenhorn(2007)은 미국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 124개 본 글로벌 기업의 국제합작투자 혹은 국제인수합병 등 해외 활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이러한 활동들이 이들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수출을 비롯한 기업의 성과가 높은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6 : 기업의 주가수익률이 높을수록 수출성파가 높을 것이다.**

주가수익률에 대한 측정은 초과수익률을 누적한 후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을 이용하였다. 측정방법에서 시장요인에 의한 주가의 변동부분은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이용하였으며, 기업별로 2008년 4월 기준 과거 1년 동안의 월별 초과수익률을 구하고 이를 누적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 III. 자료 및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KISVALUE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발행하며 우리나라 KOSPI 상장 기업 및 KOSDAQ에 등록된 기업들에 대한 회계, 재무 자료뿐만 아니라 기업현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본 글로벌 기업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추출되었다. 먼저, KISVALUE의 KOSDAQ 자료에서 IT 벤처기업에 대한 자료를 2008년 7월 기준으로 선정하여 유의한 자료가 포함된 총 173개의 기업을 선택하였다. 본 글로벌 기업의 기준은 설립한 지 5년 이내에 해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평균 수출액이 그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2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sup>1)</sup> 이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의 총 98개 기업이며 이하의 모든 분석은 본 연구의 본 글로벌기업 선정기준에 맞는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종속변수는 본 글로벌기업의 수출성과를 나타내주는 변수로 수출비중(매출액대비 수출액) 그리고 수출증가율(전년도 대비 수출액 증가율) 두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첫 수출까지 걸린 기간, 기술력, 부채비율, ROE, 그리고 해당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다.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에 사용된 자료 역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구한 다음 이들에 대한 산술 평균치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각 R&D비율은 매출액 대비 해당년도 R&D 비용을 사용하여 구하였고 부채비율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종속변수는 수출성과가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높은 기업군과 낮은 기업군의 구별은 수출성과 25%를 기준으로 하였다.<sup>2)</sup>

- 1) 이와 같은 선정 기준은 자의적이지만, 기존의 국내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또한 다른 기준 예를 들어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해외활동을 시작한 기업의 경우, 혹은 매출액대비 수출액이 50%인 경우에도 결과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 2) 이 역시 자의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분류법 예를 들어 50%를 사용하여도 결과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 2. 로짓분석

본 논문에서는 수출성과가 종속변수이므로 수출성과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이라는 범주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수출성과가 높은 경우를  $y=1$  로 표시하고 낮은 경우를  $y=0$  으로 표시한다면, 예를 들어 어느 기업  $i$  의 수출성과가 높은 경우 그 기업이 수출시기가  $P_i$  를 확률  $P_i$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_i = P(y_i = 1) = F(X_i, \theta) \quad (1)$$

위 식에서  $X_i$ 는 기업  $i$  에 대한 독립변수의 벡터를 의미하고  $\theta$ 는 알려지지 않은 변수의 벡터를 나타낸다. 실증적·개념적 이론이 없는 한 함수  $F$ 는 계산하기 쉽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선택한다. 그러한 함수 중의 하나가 로지스틱함수(logistic function)이며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_i = F(w_i) = \frac{e^{w_i}}{1 + e^{w_i}} \quad (2)$$

여기에서  $w_i = \theta \cdot X_i$  이며 함수  $F$ 는 확률분포 함수이기 때문에 그 값이 0에서 1까지로 제한되고  $F$  는  $w$  의 증가함수이며  $w_i = \log [P/(1-P)]$  이다. 이러한 로지스틱 분포함수를 가정한 후 다음단계는 최우도추정법(MLE :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theta$ 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 모형의 우도함수(LF ; likelihood function)는 식(3)과 같다.

$$LF = \prod_{i=1}^{i=n} F(\theta \cdot X_i)^{Y_i} [1 - F(\theta \cdot X_i)]^{1 - Y_i} \quad (3)$$

여기에서  $n$ 은 관찰치의 수이며 식(3)을 우도함수 로그형태(log LF)로 표시하면 식(4)와 같다.

$$\log LF = \sum_{i=1}^{i=n} Y_i \log F(\theta \cdot X_i) + \sum_{i=1}^{i=n} (1 - Y_i) \cdot \log [1 - F(\theta \cdot X_i)] \quad (4)$$

MLE 추정치인  $\theta$ 는 식(3)을 극대화하는  $\theta$ 로 정의되며  $\theta$ 는 식(4)의 1차 미분조건식을  $\theta$ 에 대하여 구함으로써 얻어진다.

## IV. 실증 연구결과

### 1. 기술통계와 t-검증결과

사용된 변수들의 수출성과 상위군과 하위군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기업군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기업군 간의 차이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4-1> 변수의 t-검정결과

	성과상위		성과하위		t 값 (예상부호)	통계적 유의성a)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수출시기	2.153	0.138	4.095	0.170	-1.268 (-)	0.0048***
기술력	0.331	0.149	0.291	0.102	1.566 (+)	0.1259
부채	2.412	2.548	2.035	1.056	0.212 (-)	0.8328
기업규모	70.71	11.00	50.27	11.63	1.743 (?)	0.0901*
ROE	0.732	0.168	0.585	0.161	2.977 (+)	0.0216**
주가	-0.142	0.569	-0.563	0.693	2.233 (+)	0.1309
표본수	40		58			

- a) \*\*\* : 1% 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수  
 \*\* : 5% 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수  
 \* :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수

<표 4-1>의 기술적 통계분석에서 각 변수의 수출성과 상위군과 하위군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부채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가설의 예상부호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즉 첫 수출 시기는 수출성과 상위군이 하위군 보다 빨랐으며, 기술력, 기업규모, ROE, 주가수익률은 수출성과 상위군이 하위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각 변수에 대한 t-검증결과는 첫 수출시기가 1%의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ROE는 5%의 수준에서 기업규모는 10%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그러나 기술력, 주가

수익률은 부호는 가설과 같으나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검증 결과는 독립변수들의 개별적인 영향을 측정했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4-2>는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2>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3이하이며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도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 설명변수의 상관관계

변수	수출시기	기술력	부채	기업규모	ROE	주가
수출시기	1					
기술력	-0.171a (.262)	1				
부채	.067 (.663)	.042 (.782)	1			
기업규모	-.102 (.506)	-.135 (.377)	.175 (.249)	1		
ROE	.059 (.701)	.231 (.127)	.151 (.323)	.033 (.827)	1	
주가	-.057 (.711)	.070 (.649)	-.147 (.336)	.108 (.479)	.093 (.545)	1

a) 피어슨 상관계수( Prob > |R| ), Ho : Rho = 0

## 2. 로짓분석 결과

### (1) 수출비중에 의한 결과

각 변수에 대한 t-검증을 통해 변수들이 수출성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출성가가 어느 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보다는 여러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다변량 분석인

로짓분석을 통해 수출성파에 따른 기업의 특성을 분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성파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대비 수출액으로 나타낸 수출 비중과 전년도 대비 수출액 증가를 나타내는 수출증가율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수출 비중을 수출 성파의 대응치를 사용하여 수출 성과 상위군과 하위군을 판별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로짓분석의 결과값- 독립변수: 수출 비중

변 수	모수추정치	Wald $\chi^2$
수출시기	-4.1496	12.216***
기술력	1.2776	2.5552
부채	1.4441	2.8329
기업규모	7.6667	1.3358
ROE	2.0415	3.9139
주가	2.4445	1.1389
상수	-18.7775	2.1343

\*\*\* :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수

모형에 대한 통계값

AIC (원모형값 : 65.7, 축소모형값 : 33.4)

SC (원모형값 : 59.3, 축소모형값 : 43.8)

-2 Log(L) :  $\chi^2 = 27.540$  (p=0.000) -- 모형의 적합도

Score :  $\chi^2 = 23.376$  (p=0.000) -- 독립변수의 설명력

수출비중을 수출성파의 지표로 사용한 결과의 로짓분석에서 수출성파 상위군과 하위군을 구별 지어 주는 가장 확실한 변수는 첫 수출 시기인데, 수출시기는 5%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 사용된 본 글로벌기업의 경우 첫 수출까지 걸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신속한 국제화가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기존의 정성적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Coviello & Jones, 2004; Jones and Coviello, 2005). 즉, 기존의 설문에 의한 조사 결과에 덧붙여 본 연

구 결과는 첫 수출시기가 빠를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로짓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아카이케 정보기준(AIC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과 슈바르츠 베이저안 기준(SC :Schwartz's Criteron)이 있다. 이 기준의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AIC와 SC에 대하여 원모형(original model with covariate)과 축소모형(reduced model without covariate)의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게 되는데 원모형의 값이 축소모형의 값보다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는 높아진다. 여기에서 원모형이란 설명변수가 포함된 본래의 모형을 의미하고 축소모형이란 원모형에서 설명변수의 계수값을 0으로 하였을 때의 모형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AIC와 SC는 모두 원모형의 값이 축소모형에 비하여 작았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는  $\chi^2=27.540$ 으로 나타나 모형이 1%의 유의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한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Score값은  $\chi^2=23.376$ 로 역시 1%의 수준에서 유의적이다.

## (2) 수출증가율에 의한 결과

<표 4-4>는 수출 증가율을 수출 성과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수출 성과 상위군과 하위군을 판별 한 결과이다. 수출 증가율을 수출성과의 지표로 사용한 결과는 수출 비중을 종속 변수로 한 경우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 비중의 결과와 달리 여기에서는 수출 증가율로 측정된 수출 성과가 높은 그룹의 ROE 즉 자기자본 수익률이 낮은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출 성과가 높은 그룹일수록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서 기업의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본 글로벌기업의 경우에서도 수출을 비롯한 국제화에 대한 정당성의 증거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다. ROE는 물론 수출이외에도 기업의 기술력, 마케팅 능력, 유통구조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지만 그 요소 중의 하나로 수출 증가율 역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본 글로벌기업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기업 설립 초기 단계부터 국제화를 시도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족한 내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따른 추가적 비용을 감수해야하고, 또 해외시장에 진출한 후에도 해외의 각종 불확실한 경제, 사회적 변수를 감안했을 때 위험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군의 기업성과 지표중의 하나인 ROE가 높다는 사실은 수출 증가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표 4-4> 로짓분석의 결과값- 독립변수: 수출 증가율

변 수	모수추정치	Wald $\chi^2$
수출시기	-3.1293	2.2016
기술력	2.2844	1.5852
부채	0.2341	5.8329**
기업규모	6.6567	0.1158
ROE	3.0017	5.9149**
주가	1.4935	0.1589
상수	-16.2575	3.1643

\*\* :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변수

모형에 대한 통계값

AIC (원모형값 : 55.4, 축소모형값 : 37.4)

SC (원모형값 : 56.3, 축소모형값 : 50.8)

-2 Log(L) :  $\chi^2 = 25.540$  (p=0.000) -- 모형의 적합도

Score :  $\chi^2 = 20.678$  (p=0.000) -- 독립변수의 설명력

부채비율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높은 그룹의 부채비율이 5% 유의 수준에서 높았다. 본 글로벌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 단계부터 급격한 국제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국제경제 환경 변화나 환율 등의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대기업에 비하여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부채관리를 포함한 재무적 변수 관리를 유연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본 글로벌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를 지니고 있고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경색을 완화해 향후 부채가 필요할 때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증 결과를 보면 이와는 달리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IT 신생 기업으로써 기술 개발이나 혹은 해외 시장 개척에 많은 자원이 투자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즉, IT 기업의 경우 높은 수출 증가율은 우수한 기술력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갖고 있어야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KOSDAQ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자본조달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추가적인 자본의 조달은 부채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본 글로벌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 향후 급격한

국내의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도의 위험을 감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력 변수를 살펴보면, t-검증이나 로짓분석에서 수출 성과가 높은 그룹의 경우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측정한 R&D 비율이 낮은 그룹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수출 성과가 높은 기업의 기술력이 높다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의 R&D 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술 개발의 경우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상용화 되어 수출 증가로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이므로 해당년도의 R&D 투자와 그해의 수출 성과와는 관련이 적다.<sup>3)</sup>

기업의 규모 변수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수출성과가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즉, IT 본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므로 기업의 규모와 수출성과와는 큰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한편으로는 기업규모의 측정변수가 종업원 수 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IT 벤처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IT 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종업원 수가 기업의 매출액 또는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통하여 기업의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가 수익률의 경우 t-검증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수출성과가 높은 기업의 마이너스 폭이 적기는 하지만 성과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점에 비추어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수출 성과에 대한 두 가지 종속 변수를 사용한 로짓분석에서도 수출성과와 주가와는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KOSDAQ시장이 수출성과가 높은 본 글로벌기업의 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KOSDAQ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 IT 본 글로벌기업의 수출 증가를 통한 기업의 향후 성과 전망을 부정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IT벤처기업 들 중 본 글로벌 기업의 개념에 부합되는 기업들에 대해 수출 성과와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높은 수출성과가 기업성과를 가져다준다면 적극적으로 수출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 생존에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생기업에 해당하는 본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각종 위험요소가 존재

3)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하는 해외진출보다는 국내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나라 본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객관적 기업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으로 측정된 수출비중을 수출성과의 지표로 사용한 결과 높은 수출비중을 가진 기업의 경우 낮은 수출비중을 가진 기업에 비해 해외진출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IT기업의 경우 국제화가 빠를수록 높은 수출성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기술력변수를 살펴보면 t-검증이나 로짓분석에서 수출성과가 높은 그룹의 경우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으로 측정된 R&D비율이 낮은 그룹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수출성과가 높은 기업의 기술력이 높다는 가설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R&D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기술개발의 경우 비용을 지출을 한 경우에도 수출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년도의 R&D투자와 수출성과와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채비율의 경우 수출증가율이 높은 그룹의 부채비율이 5% 유의수준에서 높았다. 본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대개 설립 초기 단계부터 급격한 국제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국제 경제 환경 변화나 환율 등 국제금융변화에 대기업에 비해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본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채관리를 포함한 재무적 변수관리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글로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경색을 완화해 줄 수 있고, 향후 부채가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실증결과를 보면 이와는 달리 수출증가율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다. 이는 IT신생기업으로써 기술개발이나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IT기업의 경우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을 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기업들은 KOSDAQ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본의 조달은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추가적인 자본조달은 부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본 글로벌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 향후 급격한 국내의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부도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의 규모는 수출성과가 관련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는 IT 본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기술력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규모의 측정 변수가 종업원 수로만 한정되어 있어 IT벤처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IT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종업원 수에 의하여 그 기업의 매출액 등 기업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통해 기업의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출증가율을 수출성과의 지표로 사용한 결과는 수출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수출비중의 결과와 달리 여기에서는 수출증가율로 측정한 수출성과가 높은 그룹의 ROE(자기자본수익률)이 낮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출성과가 높은 그룹일수록 자기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 기업의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 본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도 수출을 비롯한 국제화에 대한 정당성의 증거로 볼 수 있는데, ROE는 물론 수출이외에도 기업의 기술력, 마케팅 능력, 유통구조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 요소 중 하나로 수출증가율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본 글로벌 기업의 경우 여러 요인에 의해 기업 설립 초기단계부터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족한 내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감수해야하고, 해외시장 진출 후에도 다양한 불확실한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 위험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율이 높은 기업군의 ROE가 높다는 사실은 수출증가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가수익률의 경우 t-검증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수출성과가 높은 기업의 마이너스 폭이 적지만 성과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점에 비추어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수출성과에 대한 두 가지 종속변수를 사용한 로짓분석에서도 수출성과와 주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KOSDAQ 시장이 수출성과가 높은 본 글로벌 기업의 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KOSDAQ 시장 참여자들이 우리나라 IT 본 글로벌 기업의 수출증가를 통한 기업의 향후 성과와 전망을 부정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김상지·송재용(2009), "벤처기업의 신속한 국제화 결정요인 : 역량기반관점을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12권, 제1호, 107-131.

- 김형준·정덕화(2007), "본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의 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마케팅 과학 연구**, 제9권, 제3호, 24-59.
- 박근호·고경일(2007), "벤처기업의 사회적 자본·국제화 속도·국제화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리뷰**, 제11권, 제3호, 147-170.
- 박상문(2005), "벤처기업의 창업팀 특성과 해외시장 진출시기가 국제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 **벤처경영연구**, 제8권, 제2호, 3-26.
- 선우석호(1990), "한국기업의 재무구조 결정요인과 자본비용", **재무연구**, 제3호, 61-80.
- 송혁준, 김재준, 오응락(2004), "코스닥 기업의 원가효율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벤처경영연구**, 제7권, 제3호, 33-52.
- 지용희·최순권·김정포(2002), "벤처기업 해외진출 시기의 결정요인", **서강경영논총**, 제16권, 제2호, 355-374.
- Autio, E. and Sapienza, H. J. and Almenda, J. G.(2000), "Effects of Age at Entry, Knowledge Intensity, and Imitability in International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5), 909-924.
- Calof(2003), "The Impact of Size on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1(4), 60-69.
- Barber and Algre(2007), "Analysing the Link between Export Intensity, Innovation and Firm Size in a Science-Based Industr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6(3), 275-293.
- Cavusgil and Knight(2009), *Born Global Firms : A New Breed of International Enterprise*, New York : Business Expert Press.
- Cohen, W. and D. Levinthal(1990), "Absorptive Capacity :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128-152.
- Dhanaraj, C. and Beamish, P.(2003), "A Resource-Based Approach to the Study of Export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1(3), 242-261.
- Elmes, M.B. and Kasouf, C. J.(1995), "Knowledge Workers and Organizational Learning : Narratives from Biotechnology", *Management Learning*, 26(4), 403-422.
- Fama, E. and French, K.(1992), "The Cross Section of Expected Stock Returns", *Journal of Finance*, 47, 427-465.
- Fama, E. and MacBeth, J.(1973), "Risk, Return, and Equilibrium: Empirical Tes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607-636.
- Gleason, K., Madura, J. and Wiggenhorn, J.(2006), "Operating Characteristics,

- Risk, and Performance of Born-global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rial Finance*, 2(2), 96-120.
- Gleason, K., and Wiggenhorn, J.(2007), "Born Globals, the Choice of Globalization atrategy, and the Market's Perception of Performance", *Journal of World Business*, 42(3), 322-331.
- Harris and Li(2007), *Born Global Companies : Evidence from FAME and CIS*, Final Report Submitted to UKTI.
- Johanson, J. and J. E. Vahlne(1977), "The Internationalization Process of the Firm : A Model of Knowledge Development and Increasing Foreign Market Commi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8(1), 23-32.
- Jolly, V., M. Alahuhta, and J. P. Jeannet(1992), "Challenging the Incumbents : How High Technology Start-ups Compete Globally", *Journal of Strategic Change*, 1, 71-82.
- Knight, G. A., and S. T. Cavusgil(2004), "Innovatio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The Born Global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5, 124-141.
- Knight, G. A., and S. T. Cavusgil(2005), "A Taxonomy of Born-Global Firms",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45, 15-35.
- Knight, G. A., and S. T. Cavusgil(1996), "The Born Global Firm : A Challenge to Traditional Internationalization Theory", In : S. T. Cavusgil(Eds), *Advances in International Marketing*, 8, 253-267.
- Madsen, T. K. and P. Servais(199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Born Globals : An Evolutionary proces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6, 561-583.
- Oviatt, B. M. and P. P. McDougall(1994), "Toward a Theory of International New Ventur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5(1), 45-64.
- Rasmussens, E. S. and T. K. Madsen(2002), "The Born Global Concept", paper for the 28th Eiba conference, 1-26.
- Rennie, M. W.(1993), "Global Competitiveness : Born Global", *The McKinsey Quarterly*, 4, 45-52.
- Sharder, R. C., B. M. Oviatt, and P. P. McDougall(2000), "How New Ventures Exploit Trade-offs among International Risk Factors : Lessons for the Accelerate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21st Centur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 1227-1248.

- Zucchella, A., S. Danicolai, and G. Palamara(2007), "The Divers of The Early Internationalization of the Firm", *Journal of World Business*, 42, 268-280.
- Zahra, S. A., R. D. Ireland, and M. a. Hitt(2000), "International Expansion by New Venture Firms : International Diversity, Mode of Market Entry, Technological Learning, and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5), 925-950.

# Export Performance and Corporat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IT Born-globals

Bo-Yeon Min\* · Min-Ho Kim\*\*

##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orporate characteristics based on export performance of the Korean IT(Information Technology) born-global firms. The results show that the born globals with higher export intensity tend to achieve speedy internationalization than their less speedy counterparts. The debt ratios and ROE's for the higher export performance group are higher than the lower group. However, the firm size and market returns have little relationship with the export performance.

**Keyword : Born-globals, Export Performance, Internationalization**

---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nbuk National University.